

소와 말, 누가 헤엄을 잘 치는가?

“오프라인과 언택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인류는 분명 이 둘을 통합한 새로운 시냅스 사회를 만들어 낼 것이다.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은 언제나 최고의 효용을 지향해 왔기 때문이다.”

59일 간의 긴 장마는 끝났지만 농민들에게 남은 상처는 아직 가시지 않은 듯 하다. 연일 홍수로 범람하는 하천들을 바라보며 애처로움을 보내고 있을 때, 수십 킬로미터를 떠내려간 황소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이야기가 대서특필되었다. 과거에도 큰 홍수가 날 때면 소가 범람하는 물에 쓸려가는 장면이 TV에서 여러 번 목격되었고 기사화된 적이 있었다. 과연, 몸이 육중한 황소는 어떻게 생사의 기로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가?

사실 소는 헤엄을 잘 못 친다. 반면 말은 헤엄을 잘 친다. 말과 소를 강물에 던지면 말은 빠르게 헤엄쳐서 나오지만 소는 한참 뒤에야 겨우 살아서 나오는 정도이다. 하지만 홍수가 났을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말은 물에 쓸려 죽어나가지만, 소는 살아 돌아온다.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우생마사(牛生馬死)이다. 이유인즉, 말은 헤엄을 잘 치기 때문에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다 지쳐서 익사하고 말지만, 소는 얼마나 멀리 가든지 물살에 몸을 맡기다 어느 순간 강둑 근처에 닿으면 우직하게 걸어 올라온다.

물에 빠졌을 때 헤엄을 잘 치는 것은 중요한 생존능력이다. 하지만 큰 물살에 휩쓸렸을 때는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 인류는 현대사에 전례 없는 큰 충격과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이미 내 몸에 베어 있는 과거의 성공방식으로는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 아니, 그것을 고집하는 순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말처럼 패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습관을 놓기가 힘들다. 말은 과연 물살을 거스르지 않고 소처럼 휘몰아치는 물살에 몸을 맡길 수 있을까?

사실 그 자체가 딜레마다. 하지만 명확한 자기인식과 상황인식이 전제될 때 딜레마는 통찰에 이르는 길을 내어 준다. 깊은 통찰은 열 길 벼랑 끝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는 필사즉생(必死即生)의 각오를 부른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리더를 중심으로 조직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우리의 일하는 방법과 관계방식, 그리고 삶의 구석구석까지 그 선이 닿아야 한다. 공간과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의도 자연스럽게 요구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가 몰고 온 세상의 변화는 그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강력한 언택(untact) 경험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오프라인과 언택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인류는 분명 이 둘을 통합한 새로운 시냅스 사회를 만들어 낼 것이다.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은 언제나 최고의 효용을 지향해 왔기 때문이다.

긴 장마가 그쳤다. 대지의 주인공은 언제나 강한 생명력이었다.

CEO James Roh(노상충)

우리의 지식은 경험에서 시작하나, 경험에서 비롯되지는 않는다. _ 칸트